

당선인 첫 상견례, 지역 발전 결의

익산시-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현안 사업 · 국가예산 확보 노력할 것

익산시와 제22대 익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이 첫 상견례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익산시는 24일 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 당선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당선인(익산갑), 한병도 당선인(익산 을)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정현을 시장이 두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들은 익산시장 주요 현안과 당선인 공약 사업, 주요 국가예산 확보 현황, 지역의원 건의사업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다.

이춘석 당선인은 이날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황등

호 역사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한병도 당선인은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과 교육발전특구 성공 추진을 다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당선인들에게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공유하고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북권 광역전철망(서철) 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황등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 등에 대해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춘석 당선인은 “또 한 번의 시작을 앞두고 감회가 새롭다”며 “익산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선인은 “행정과 정치권의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익산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가까이 중지를 모아주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한경국립대학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교육, 홍보, 시설의 상호 활용, 지원 등에 대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귀금속 · 보석 기술 공유 · 학술교류

익산 보석박물관, 한경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한경국립대학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교육, 홍보, 시설의 상호 활용, 지원 등에 대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보석박물관은 지난 24일 한경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석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인경 보석박물관장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이민경 한경국립대학교 부총장 귀금속보석공예전공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국립대학교는 지난해 안성 소재 한경대학교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해 출범한 국립대학교이다. 평택캠퍼스 내 귀금속보석공예전공 창의예술학부는 20년 이상 전문가를 배출하며 귀금속 · 보석 산업 발전

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귀금속 · 보석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교육 및 행사 시 인적 · 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학술교류와 홍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석박물관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생이 전시관과 이스트리플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인경 보석박물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경국립대 학생들에게 보석박물관과 익산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17회 쿠리티바 IAEC 세계총회’ 참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우수사례 발표... 국제교육도시 위상 드높여

군산시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브라질 쿠리티바 시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7회 쿠리티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에 참가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국제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 1994년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www.edcities.org)은 전 세계 회원 도시 간 공동연구와 실천 사례 공유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 등을 추진하는 평생교육관련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다.

1994년 설립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38개국 51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군산시는 2008년 10월에 가입, 2009년 IAEC 아시아·태평양지역 네트워크 집행도시로 2026년까지 4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IAEC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군산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도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시에서 개최된 제15회 IAEC 세계총회에서 세계에서 평생교육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인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세계총회는 “평생교육도시의 지속가능성, 혁신성 및 포용성”란 주제로 열렸으며, IAEC 사무총장인 마리

나 까날스스페인)를 비롯한 전 세계 13개국 129개 회원 도시 및 비회원 도시 평생교육 전문가 등 약 1,000여명이 참가했다.

총회는 개막식 이후에 회원도시 정례회의, 상임이사도시 회의, 기조강연, 분야별 워크숍, 아태 회원도시 지역회의, 평생학습 현장 탐방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총회에서 군산시는 탐페레(핀란드), 렌(프랑스), 베니스(이탈리아), 아델레이드(호주), 메데인(콜롬비아), 로사리오(아르헨티나) 등 15개 도시와 함께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도시로 선정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청렴 실천 결의대회 · 뮤지컬 콘서트 개최

익산시가 반부패 · 청렴 으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뮤지컬 콘서트’를 개최했다.

청렴 실천 결의대회에서는 지난달 치러진 청렴골든벨 우승자 모나미 주

무관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준우승자인 박에서 주무관이 청렴 익산 구호를 선창하며 전 직원의 굳은 청렴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청렴 뮤지컬 콘서트 ‘부패탈출 남버린! 평생 트레이닝 센터’를 진행해 반부패 · 청렴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뮤지컬은 부패 공직자들이 자신의 부패 행위를 깨닫고 시름을 통과해 평생 트레이닝 센터를 탈출하는

이야기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내용을 공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 정보와 재미를 함께 줬다는 평이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전 직원이 다시 한번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장에인체육회 드림 패럴림픽사업 선정

익산시장에인체육회가 ‘2024 드림 패럴림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3개소를 선정했는데, 기초자치단체 규모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드림 패럴림픽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체험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익산시장에인체육회는 익산반대비체육센터의 시설을 토대로 선수 출신 전문강사들을 배치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반대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폭언 · 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군산시, 군산시청 및 27개 읍면동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군산시는 민원인들의 폭언 ·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군산시청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비상상황 하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으며,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경찰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 상황 촬영 △비상벨 호출 △청원경찰 호출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6월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개최

군산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씨름협회(전북특별자치도씨름협회) 주관으로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 대회를 은파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공모사업인 전통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은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국가무형유산인 씨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그동안 사라졌던 전라도에서 유행했던 ‘오른씨름’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씨름인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른씨름(바른씨름)’은 오른손으로 상대의 허리를 쥐고 왼손으로 상대의 살바를 잡고하며, 경기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했던 씨름이다.

이번 대회는 △애기씨름(훈성초등부) △중씨름(중고등부) △상씨름(남자성인부) △여자씨름(여자부) 등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6월 8일에는 시범경기와 예선전이, 6월 9일에는 결승전 등 본선경기가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한 번이라도 등록된 적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 미등록 선수여야 한다.

사전신청(<https://blog.naver.com/jssi/223438801329>)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김현석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씨름 대회를 통해 전라도 전통씨름인 오른씨름을 알리고 ‘씨름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 · 금당 · 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